

金東仁 長篇小說 研究

尹 政 憲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英雄의 登場과 性格創造 |
| 2. 新羅 中心史觀의 克服과 民族意識의 高揚 | 4. 創作觀의 變貌와 通俗性 受容 |
| | 5. 맺음말 |

1. 머 리 말

우리 近代文學史가 말해 주듯이 新小說時代의 開化的 性格과 春園의 功利主義的 傾向을 清算하게 된 가장 큰 功勞는 琴童 金東仁에게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本格的인 純文學을 主唱했던 東仁의 片影은 그동안 주로 그의 短篇小說을 중심으로 탐색되어져 왔는데, 이는 ‘功利的 性格의 長篇小說에서 純粹藝術 指向의 短篇小說에로의 轉換’이라는 東仁의 文壇史的 業績을 부각시키기 위한 한 方便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서 東仁의 장편소설은 ‘通俗性’이란 획일적 시각에서 照明되어져 그 진정한 文學的 價値가 死藏되어 왔을 뿐 아니라, 논의 대상도 전체 장편소설이 아닌, 극히 한정된 몇 편에 불과했던 것이 既往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우리 근대문학 초기의 巨峰인 東仁의 變身이 의미하는 보다 큰 의미를 屈折, 減少시키고 있다.

1919년 <創造> 發刊을 계기로 反功利主義의 旗幟 아래, 다양한 선진 문예 사조를 작품에 수용하면서 단편작가로 文名을 날리던 東仁은 1929년 東亞日報에 그의 최초의 長篇小說인 ‘젊은 그들’을 연재하게 된다. 이후 그는 1948년 ‘울지문덕’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편의 장편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는 의도적인 순수문학의 한계(지나치게 春園을 의식한)를 극복하려 고심하던

2 嶺南語文學(第14輯)

東仁의 새로운 代案이었다.

또한 당대 대부분의 작가들의 共通課題였던, 日帝의 檢閱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창작의 基底를 毀損시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그는 장편소설을 통해 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대부분의 장편소설이 新聞連載小說이었던 것과 無關하지 않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視角에서 東仁 長篇小說을 再照明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단편소설에서와는 달리 그의 장편소설에서 辨別적으로 드러나는 作家意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作中登場人物의 性格과 創作方法論의 問題를 검토해 봄으로써 東仁 長篇小說의 眞正한 位相를 把握하려는 本論議의 核心에 도달코저 한다.

2. 新羅中心史觀의 克服과 民族意識의 高揚

순수예술을 지향하면서 一切의 理念 및 目的性(對 社會的 關心)을 容認치 않았던 東仁이 그의 단편소설에서와는 달리 장편소설에서 분명한 ‘觀’(-ism)을 내세웠다는 것은 ‘新羅中心史觀의 克服을 통한 民族意識의 高揚’이란 사실로 집약되어 질 수 있다.

東仁에게 있어 純粹藝術을 指向하는 文學觀은 다분히 春園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러니(純粹文學觀 自體가 目的意識의인)에서 출발했던 만큼 이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나게 되고 여태껏 意圖的으로 遮斷했던 當代의 現實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민족현실에의 참담고도 도도한 歷史意識을 비로소 작품 속에 담아내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短篇小說이란 容器는 너무나 작음 그릇이었다. 이에 그동안 白眼視했었던 長篇小說이란 보다 포용력이 큰 창작의 대상을 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東仁은 그의 歷史觀을 마음껏 펼쳐 보인다.

東仁의 長篇小說에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歷史觀——新羅中心史觀의 克服——은 ‘高句麗 正統論’으로 작품 속에서 具體化된다.

먼저 그의 역사적 소양을 피력한 史論書 <朝鮮史溫古>를 살펴보자.

그런데 日本人이며 一部人은 檀君 御國 千五百年이란 것을 황당무계하다 하여

이로써 檀君을 부인하려 한다.

이것은 檀君을 한 분이라 보는 착각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해석이요 처음 阿斯達에 건국하신 檀君은 「王儉」이요 마지막 東明帝 高朱蒙에게 傳位하신 檀君은 「解慕漱」다. 즉 「檀君」은 이 겨레의 聖主라는 代稱이다.¹⁾

고구려 시조 東明은 檀君의 후계자로(東明의 姓도 解氏다.) 그의 誕生神話는 全東方의 信仰으로 되어 京明後 千餘年인 高麗 中葉人 李奎報의 「李相國集」〈東明王篇〉을 보자면,

…………중 략…………
 더우기 高句麗人은 적하면 高句麗 八백년간을 내내 「天帝之子 河伯之甥, 東明聖帝의 나라의 백성이로라」고 뽐냈으며 東邦에는 東明을 분뻘서 卵生이라고 한 임금 이 꽤 많다.

이것이 모두 檀君 겨레라는 서로 공동된 神話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新羅의 건국이 高句麗보다 앞서지 않았느냐, 앞선 자가 어찌 뒤선 자를 본뜨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新羅가 먼저 건국된 듯이 三國史記의 撰者인 新羅 後人 金富弼의 붓 농락 때문에 생긴 착각이지(몇 해 앞섰는지는 지금 상고할 수 없으나), 여기 참고할 것은 ……………중 략…………

高句麗의 건국이 먼저라는 것은 史家의 일치된 견해며 온갖 정세로 보아도 앞섰을 것이며, 唐나라 侍御史 賈言忠의 「高句麗秘記云, 高句麗不及九百年……云云」이란 것으로 보아도 三國史記가 말하는 바의 七百年과는 엉뚱히 달라서 三國史記에는 실제보다 근 二百年이 축감되어 있는 듯하다.

金富弼이 檀君을 목살하고, 高句麗를 경원한 正史를 남기고 또 「舊三國史記」며 古記, 金富弼 「三國史記」 이전의 모든 史記는 소멸되고, 게다가 儒學 輸入은 침입자 箕子를 도리어 朝鮮王으로 추대하는 위에, 日本人의 建國 先後 경쟁 등 가지가지의 까닭 때문에 우리는 하마터면 우리의 거룩하신 옛 어른들을 잃을 뻔하였다.

이렇듯 高句麗는, 단군 겨레인 高句麗, 百濟, 新羅 등 삼국에서 가장 먼저 건국하였다.²⁾

東仁이 高句麗를 檀君 겨레의 統帥로 규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長篇은 〈서라벌〉과 〈乙支文德〉이다.

〈서라벌〉은 古代 三國의 建國說話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順으로 小說化한 作品이다.

작품의 제목 〈서라벌〉은 언뜻 新羅 위주의 스토리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1) 〈朝鮮史溫古〉, 三中堂, 東仁全集 V.7, p.545.
 2) *Ibid.*, p.546.

실상 東仁이 쓰고자 한 내용은 三國 중에서 新羅나 百濟가 아닌 高句麗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우리 民族史의 法統의 줄기를 小說의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東仁의 주장에 따르면 檀君으로부터 비롯되는 韓民族의 法統은 扶餘를 이루고 부여에서 高句麗 八百年으로 다시 이어져 오다가 소위 신라의 三國統一기에 잠시 民族史의 法統이 흐려졌으나 高麗가 비로소 민족의 법통을 되찾아 승계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新羅를 중심으로 古代 韓民族史를 記述하는 대부분의 歷史敘述方式과 그 유형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最初로 民族自覺의 主體勢力이 되었고, 그런 이유로 근소국가를 통합하는 고도의 大局的 見地에서 신라와 백제의 건국과 국가적 발전을 默認하였으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형성과정을 前後해서 유입된 中國人들을 그들의 나라로 쫓아 버렸으니 이는 바로 단군의 유일한 법통을 잇는 후예로서 민족사의 위대하고 거룩한 초석을 마련한 典據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작가가 東方三國誌를 쓰고자 했던 것이 이 작품의 저작동기가 되었던 듯하다.³⁾

하여튼 단군의 후예로서의 高句麗精神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고 고구려가 어떻게 異民族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단일민족으로서의 一國을 건설했는가를 紮明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가 新羅와 百濟를 바라보는 視角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서 東仁은 新羅中心으로 置重되어 있는 歷史認識을 의식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신라와 백제에 그만큼 대단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즉 고구려는 高朱蒙이 건국한 단군의 법통을 잇는 유일한 正統이며, 백제는 그러한 高朱蒙의 次子인 高溫祚가 高朱蒙의 허락과 배려에 의해 세운 나라에 불과하고, 신라는 종족, 언어, 풍속이 고구려와 같은 단군의 후손으로 마땅히 다른 두 나라(고구려, 백제)와 同祖同族의 국가이므로 三國時代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들의 갈등은 異民族과의 紛爭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羅의 三國統一은 그만큼 그 意味가 弱化되게 되고 결국은 同族인 高句麗와 百濟의 滅亡에 불과하게 된다.

3) 洪起三, 新羅中心主義의 克服, 東仁全集 V.2, p.565.

東仁의 이러한 歷史觀은 日帝下에서 民族魂을 喪失한 채 방황하던 수 많은 朝鮮人들에게, 異民族 唐나라의 힘을 빌려 同族을 滅하는데 그친 新羅의 懦弱한 機會主義의 俗性을 糾彈하고 北方의 異民族을 堂堂하게 號令하던 高句麗의 兀峙한 氣象을 民族의 精氣의 次元에서 再照明하여 강력한 톤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데서 충분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라벌>이 주로 고구려를 頂點으로 한 法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면 <乙支文德>은 高句麗의 웅대한 스케일과 거인적 풍모를 의도적으로 과시하여 나타내려 한 작품으로 보인다.

원래 이 작품은 乙支文德이 隋와 唐을 격퇴시키는 지략과 용맹은 물론 고구려의 위력에 넘치는 힘과 대국주의적 면모를 서술함으로써 日帝 強占下의 침체된 民族魂을 覺醒시키려는 의도에서 저술되어진 것이나 증도에 그의 병세로 인해 중단되어 버려 아쉬운 감이 있다.

東仁은 <울지문덕>에서 一見 지나칠 정도로 고구려의 위용을 부각시킨다.

「고구려를 위해서는 걱정마오. 울지 승상은 가셨을지라도 울지 승상이 뿌려 두신 高구려魂은 그냥 남아 있소. 한병(漢兵)이 울 때는 말 타고 왔다가 갈 때는 업혀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준비는 고구려에 넉넉히 있습니다.」

「좋은 임금님께 충성된 승상님께 효용한 백성——만성에 과연 고구려 나라는 혼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수(薩水)에서 떨어져 이 나라에 투화(投化)하고 말았소이다.」

「잘했소. 우리 나라에 투화하면 죽은 뒤에라도 나는 고구려 사람이거나 하는 자랑이라도 남지만, 당진네 나라는 대체 한(漢)이요, 수(隋)요, 당(唐)이요? 죽은 뒤에도 돌아갈 나라가 없구요. 팔백년 먼먼히 누려온 고구려에 비하면네, 오 년, 십 년씩 누리다가는 딴 나라가 되고 하는 당진네 나라는 그것도 나라랄 수 없소? 그……」

「아이, 듣기 부끄럽소이다. 말씀 말아 주십시오. 그러기에 내 나라 배반하고 고구려에 투화하지 않았습니까? 내 옛 나라 소식은 듣기조차 부끄럽습니다.」⁴⁾

위의 인용대목은 이 작품의 서두 ‘시조’편에 나오는 장면으로 울지문덕이 죽은 후에도 고구려의 國防은 끄떡 없음을 어느 고구려의 상점 주인이 漢人 나그네에게 자랑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백제와 신라의 가벼운 도발에는 고구려는 아예 상대도 않는다는 지 고구려의 女人들이 말끝마다 “나는 고구려 여인이외다” 하며 他種族에게

4) <울지문덕>, 東仁全集 V.2, pp.467~468.

우월감을 내세우는 장면, 또한 평안호태왕(平安好太王) 시절에 왜적의 침노를 맞은 신라를 구해 주는 장면, 고구려가 양회를 길에 발라 도로포장공사를 넓고 길게 해 놓았다고 서술한 國力表現의 대목 등 여러 부분에서 고구려의 우월, 강인, 관대, 주체적 자각 등을 드러내 보여 준다.

脫新羅의 흐름 속에서 민족혼을 불태우는 모습은 그의 또 다른 장면 <견훤>에로 이어진다.

<견훤>은 역시 史上의 人物인 後百濟의 創業者 견훤(甄萱)이 패망한 백제를 재건코자 하는 大望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새 나라는 드디어 성립이 되었다. 무명의 나라요 무명의 임금이었다. 그러나 이 이름없는 나라를 누구든 이름 없다 보지 않았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백제의 옛 주인인 후예요, 그 땅이 백제의 옛땅이며, 그 백성이 또한 백제 옛땅의 백성이니, 아무리 나라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무명국이라고는 결코 못할 것이었다.

…………중 략…………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천천히 대군을 인솔하고 북진(北進)을 개시하였다. 목적하는 곳은 완산주(完山州)였다.

완산주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호를 발표하고 관직을 분설하고 하여, 당당한 한계 국가로서 당나라와 신라에 대하고자 함이었다.⁵⁾

東仁은 견훤이 신라의 늑을 먹다가 과감히 신라에 반기를 들고 ‘후백제’란 이름의 나라를 세운 데 주목하고 있다. 견훤은 백제의 유민으로서 240년 전에 나당연합군에게 짓밟힌 백제의 넋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견훤이 보여주는 亡國의 王孫으로서의 恨과 王族으로서의 긍지는 우리 민족이 유구히 이어온 법통과 國恥인 것이며 이는 곧 東仁이 들려 주려 한 민족혼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밖에도 대원군의 大人的 氣質을 통해 民族意識을 고취하려 한 <젊은 그들>과 <雲峴宮의 봄>, 首陽의 비범한 인간상이 난세를 슬기롭게 풀어가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케 된다는 <大首陽> 등 東仁의 長篇小說 全般을 통해 볼 때, ‘신라중심사관의 극복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양’이란 그의 역사의식이 뚜렷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5) <견훤>, 東仁全集 V.3, p.243.

3. 英雄의 登場과 性格 創造

東仁의 長篇小說에는 거의 빠짐없이 英雄型의 人物이 登場하고 있다.

이는 强者 指向의 東仁의 倨傲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혼을 앞장 서서 불태울 수 있는 非凡하고도 才能있는 人物을 그의 장편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東仁의 이러한 英雄 乃至 超人 選好는 이미 그의 단편소설들인 〈狂畫師〉, 〈狂炎소나타〉, 〈붉은 山〉, 〈배따라기〉, 〈X氏〉 등의 작품들에서 드러난 특색이다.

그런데 東仁의 長篇小說에 登場하는 英雄들은 無味乾燥한 歷史上的 劃一的인 人物들이 아니라 歷史的 典據에서의 이미지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作家 東仁에 의해 性格이 再創造되어 있다.

즉 역사의 경직성으로부터 文學을 통한 英雄的 人物의 再解釋이 시도되어 독자들 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人物로 形象化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등장인물의 성격에 있어 春園의 〈端宗哀史〉에 대한 패로디(Parody: 諷刺의 模倣)로 創作되었던 〈大首陽〉의 경우를 살펴 보자.

두 작품이 同一한 時代와 人物을 素材로 하고 있지만 작가의 視線이 判異하다는 것은 이미 기성논의에서 누차 논급된 바 있다.⁶⁾

두 작품 사이의 相異한 양상을 꼽아 보면, 먼저 〈端宗哀史〉가 少年王 端宗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15년간의 사건을 그린데 비해 이 〈大首陽〉은 청년 首陽大君이 보좌에 오르기까지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春園이 死六臣을 중심으로 한 忠義觀을 主題化했음에 비해 東仁은 世祖의 登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셋째, 춘원이 어린 王의 悲運에 同調하는 人物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충성심을 작품화하고자 했다면 東仁은 英雄的 人物을 통한 사건의 전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登場人物의 性格 描寫에 있어서도 두 작품은 善과 惡의 위치와 그 개념이 顛倒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⁷⁾

6) 金治弘, 「大首陽」研究, (명지어문학 9호), 1977.

朴容九, 〈歷史小說入門〉, (乙酉文化社), 1975.

金光煥, 春園의 「端宗哀史」와 東仁의 「大首陽」에 나타난 作家意識研究, (慶熙大教育大學院), 1982. 等

7) 宋百憲, 〈大首陽〉論, (金東仁研究, 새문사, 1982), p. I ~59.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차이점들이 결국은 東仁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 듯하다.

소설 구성에 있어서 몰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도의시키고……소년왕이니 불쌍하다 하는 단순한 견해로 결말을 지었는지라, 이것은 인생의 일면도 아니요, 당년의 사회상의 검토도 아니요, 단지 소년왕의 一代記에 지나지못한다.

……중략……

史話의 기록자라는 書記役에서 「史實의 再生」이라는 소설역으로 躍上할 노력을 기권한 데 이 <端宗哀史>의 치명상이 있는 것이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한 東仁의 代案이 ‘英雄’ 首陽의 性格 創造였다. 歷史小說에 있어 人物化(Characterization)에 관한 문제는 東仁의 오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苦心한 것은 史上人物의 성격과 특징을 주는 점이었다. 만연히 역사의 「이야기 줄거리」에만 붙들리어 썩 나가려면, 그것은 꿈결에 듣는 옛말 같아서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물로서의 산(生)사람으로서의 그림자를 확실히 부어 넣으려면 그 인물의 성격과 특징이 완전히 나타나 있지 않으면 안된다.

春園의 <端宗哀史>며 <麻衣太子> 등이 이 점을 관심치 않았기 때문에 진실성을 잃어버렸고, 人形이나 허수아비들이 등장하여 노는 것 같이 된 것이다.⁹⁾

그러면 <大首陽>에서 英雄의 性格化를 통해 東仁이 펼쳐 보인 首陽의 人間像은 어떠한가?

왕위선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웅으로서의 인간적 면모를 잃지 않았던 首陽의 모습을 東仁은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正大한 人間의 姿勢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제한된 어느 구절에 限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묘사’로서 작품 전체를 통해 파악되어 질 수 있다.

歷史的 實相이야 어떻든 首陽은 처음부터 王位를 노리는 人物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자기의 道德을 다함으로써 참다운 사람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李光洙의 <端宗哀史>가 史實中心의 소설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人物의 圖式的 善惡 判別에 머물렀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은 東仁이었으므로 <大首陽>에서의 首陽은 평범한 인간으로 자기의 도리를

8) <春園研究>, 東仁全集 V.6, p.135.

9) 처녀장편을 쓰던 시절, 東仁全集 V.6, p.309.

다하는, 새로운 性格으로 創造되어 있는 모습으로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격 중심의 소설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 首陽의 歷史意識에 대한 正直性이다.

어느 王朝라도 지배층의 合理化를 위해 역사가 허위로 기술되어 질 수 없다는 투철한 歷史的 自覺을 말하는 것이다. 首陽은 端宗의 補佐로서 여러가지 업적을 쌓는다. 그 가운데 明에 가는 謝禮使로서 遼東을 건너다가 젊은 학자 申叔舟와 더불어 私慾에 敗北한 史家의 誤謬를 폭로하는 장면이 있다.

옛날 정도전(鄭道傳)이 태조의 분부로서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할 때에, 고려사를 전연 만 물건으로 만들었다. 고려라는 나라를 둘러엮고 생긴 이세 조선인지라, 고려사를 나쁘게만 고칠 필요를 느낀 것이었다.

그 뒤 세종 때에 당시의 예문제학(藝文提學)이던 정인지(鄭麟趾)에게 명하여 또 고려사를 편찬하였다. 정도전에 의하여 한번 찍인 고려사는 정인지에게서 재차 찍이어, 아주 다른 역사가 되어 버렸다.¹⁰⁾

이조의 터전을 굳건히 하고자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던 首陽이었지만 자기 왕조를 위해서만 유리하게 기술된 역사에 대해서는 냉엄히 비판할 수 있는 정직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세째, 儒家의 文弱性和 服從主義를 비판하는 進取的 思想이다.

禮法에 의한 처사보다는 자기의 진지한 판단기준에 의한 행동이 더욱 국가의 大勢를 위한 길이요, 참 臣下로서의 도리요, 나아가서는 참 人間으로서의 행위임을 믿었던 것이다. 전편에 깔려 있는 民族意識과 함께 首陽은 참 人間の 도리라면 어떤 형식적인 예법도 무시할 수 있는 진취적 개성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 있다.¹¹⁾

〈운현궁의 봄〉은 우리 근세의 걸출한 영웅, 흥선대원군 李昰應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더듬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의 歷史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인물 가운데 大院君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펴 흥미있는 인물이다. 정치가로서의 대원군의 치적은 긍정과 부정, 두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自然人 李昰應에 대한 인간적 면모를 다룬 접근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탐구가 社會科學 分野의 관심사라면 自然人으로서의 ‘이하응’에 관한 연구는 응당 國學, 그 중에서도 文學하는 이들의 課題가 아닐 수 없다.

10) 〈대수양〉, 東仁全集 V.3, p.90.

11) 鄭漢淑, 金東仁의 歷史小說, 東仁全集 V.3, pp.573~574.

東仁의 〈雲峴宮의 봄〉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이하응’의 性格을 再創造해 浮彫시켜 놓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철종 말에서 고종 즉위시까지, 朝鮮의 政治的 構圖는 安東金氏 一派에 의해 行事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강화도의 寒村에서 樵童으로 지내는 소년 ‘원범’을 王位에 앉혀 놓고 그들 一門의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 그 마음대로 政事를 요리하는 것이다. 철종이 왕위에 있는 한, 혹은 안동김씨인 왕후에게서 왕자가 탄생하고 세자로 책봉되는 한 그들의 권세는 영원불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안동김씨들에게 있어, 철종에게 뒤를 이을 王子가 없음을 크나 큰 고민거리이다. 그리하여 만일 철종이 王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 그들의 권좌가 무너질 경우를 생각하여 왕위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宗親들은 죄를 만들어 제거시키게 된다. ‘이하전 역모사건’이 그런 경우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興宣君 李昰應은 종친으로서 안동김씨들의 肅淸射程圈에 들지 않기 위해 장안 건달로서의 名演技를 펼친다. 그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나갔는가를 서술한 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李昰應의 영웅적이고도 인간적인 면모와 고뇌가 생생히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¹²⁾

왕족이 벼슬하는 것을 금하는 바였다. 그 금령 때문에 벼슬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왕족으로서 상인(商人)이나 공인(工人)이 될 수도 없는 영락된 공자들은, 자기네의 사촌 혹은 오촌 육촌이 팔 도 삼백 주를 호령하는 지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갓집 개 모양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 쥐고 헛헛하며 장안 대도를 헤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낙향을 하여 몸소 낫을 잡아 세를 베며 보석을 끌어 받을 가는 것이었다.

왕족끼리의 교제도 없었다. 만약 서빨리 교제를 하다가는 어떤 죄명 아래 어떤 형벌이 자기네의 위에 가해 질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¹³⁾

朝鮮朝의 王族들의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흥선군 ‘이하응’인들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 역시 일정한 수입 없이 가난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권세를 쥐고 왕족들을 박대하는 안동김씨 일문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지금 임금 철종에게 後嗣가 없음에 눈을 돌린 ‘이하

12) 金永和, 〈雲峴宮의 봄〉과 인물의 형상화, (金東仁研究, 새문사, 1982), p. 11~37.

13) 〈운현궁의 봄〉, 東仁全集 V.1, p.26.

응'은 의미있는 미소를 짓는다. 철종이 이대로 죽을 경우엔 종친 가운데 새로운 三을 고를 것에 著眼한 것이다. 그때까지 안동김씨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기생방을 드나들고 투전에 손을 대어 공자로서의 품위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그리하여 안동김씨 일문의 경계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리하여 종친들의 위에 엄중한 검토의 눈을 붓고 있는 김씨 일문도 홍선에게 받은 감시의 눈을 던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이름은 종친이라 하나, 홍선의 인격은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비루하게 보였으므로 종실의 강아지에게까지 경계의 눈을 붓는 김씨 일문에서도 홍선군 이하응뿐에게는 절대의 안심을 느끼고 있었다.¹⁴⁾

홍선군 '이하응'의 지략, 술책, 통찰력 등이 그의 완벽한 연기 속에 용해되어 나타내어진 것은 그만큼 인간 '이하응'의 영웅적 면모를 긍정적으로 형상화(성격 창조)하려 애쓴 東仁의 노력의 結晶이었던 것이다.

<운현궁의 봄>이 집권하기 전의 대원군을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젊은 그들>은 권좌에서 밀려난 대원군의 인간적 모습을 첨예하게 그리고 있다. 東仁은 이 작품을 통하여 당시 우리 나라의 政治와 社會의 混亂相을 극명히 보여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왕권을 상징하던 大院君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젊은 그들>에는 완전한 가공의 집단인「活民塾」과 그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인 塾生들의 대활약이 東仁에 의해 형상화되어,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인 민비일파(대원군의 반대세력)와의 투쟁을 허구적 차원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백경은 歷史에 두고 史上의 人物을 중요한 줄거리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歷史小說은 아니요 거기 나오는 인물은 대원군, 그밖 1,2人を 제하고는 썩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 架工의 인물에 전부 개별적으로 성격을 주어 활동케 하고 架空의 인물과 史上의 인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對談을 시키고 교제를 시키는 데 모순이 없고 충돌이 없게 하기에 껍이나 애를 썼다.¹⁵⁾

여기서 '가공의 인물'이란 역사의 저변에서 소리없이 사라져 버린 수도

14) *Ibid.*, p. 89.

15) 처녀 장편을 쓰던 시절, *op. cit.*, p. 309.

있는 가상의 영웅들(이활민, 안재영, 이인화)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성격 창조를 통해 대원군과의 교유를 보여줌으로써 고뇌하는 인간 이하웅의 참모습 추출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정치적 평가와는 달리 문학을 통해 재창조된 인간 이하웅을 東仁은 마음껏 두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을지문덕>, <견훤>은 물론, 동명성왕의 일대기인 듯한 착각을 주는 <서라벌> 등 대부분의 東仁 長篇小說에는 성격창조된 영웅들이 등장하여 경직된 역사상의 인물에서 벗어나 생생히 살아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 創作觀의 變貌와 通俗性 受容

원래 순수문학만을 고집하며 문단에 발을 들여 놓았던 東仁이었지만, '민족의식의 고양'이란 이념을 성격창조된 인물을 통해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키려니 자연히 독자 대중을 다시금 의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의 창작관에 일대 변혁이 생긴다.

즉 아무리 문예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도 독자없는 문학은 그 존재가치가 의심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대중의 支持가 없을지라도 문학은 존재할 수와 가치는 있다. 그러나 대중이 없이 존재한 문학은 마치 심산의 보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相對的 價値가 없는 바이다. 그러던 조선의 文學徒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하나?

文學道 자체의 가치는 바 亡羊嘆과 아울러 文學建設 方途의 亡羊嘆까지 가진 조선의 文士된 자의 입장은 진실로 괴롭다.

亡羊嘆! 亡羊嘆! 우리의 많은 양은 장차 어디서 찾아내일까?¹⁶⁾

독자 대중과 격리된 文學은 아무리 純文學일지언정 작가 자신만의 空虛한 매아리일 뿐이며 사회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對外的 現實에 눈을 돌려 民族的 自存의 테마를 찾아내게 되고 이것을 독자 대중과의 타협 아래 제시할 방법론을 강구하게 된다. 즉시 그 해답은 리얼의 예술인 순수문학(단편소설)시절 그의 공경대상이었던 '通俗性'에서 찾아지게 된다. 이는 日帝의 檢閱時 작품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효과적

16) 亡羊嘆, 東仁全集 V.6, p.567.

은폐수단이 됨은 물론 자신의 ‘이즘’을 대중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가장 밀착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東仁에게 있어 對外的 關心의 表出 그릇이었던 長篇小說은 ‘通俗性’을 作品의 基底에 깔게 되면서 많은 독자 대중을 확보케 되는데 이는 그의 대부분의 장편소설들이 新聞連載小說이었던 것과 無關하지 않다. 이 경우 東仁이 追求한 通俗性은 低級한 價値認識으로 罵倒되기 보다는 독자대중에게 민족의식을 전달, 고양시키고자 한 방법으로 채택되어졌다는 의미에서 一見 肯定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장편 <해는 지평선에>는 東仁의 이러한 통속성이 빼어나게 작품의 미적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現王의 失政에 대한 그 원인이 죽은 왕비에 대한 추모의 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궁중의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를 밀도있게 펼쳐고 있다.

이 <해는 地平線에>에 대하여 어느 시대의 일이나, 어느 땅의 일이나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거기 대하여 한 마디 말하고자 합니다.

그 시대며 땅은 모두 당신네들의 상상에 일임합니다. 천 년 전, 五백 년 전, 백 년 전——아무 때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조선, 만주, 몽고, 서장 혹은 인도, 아무 땅의 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 략…………

순진한 창작——그리고 또한 순진한 한 개의 이야기……그런지라, 거기엔 작자의 마음에만 있으면 어떠한 소위 <시대 착오>의 사건이 혹은 가입되고 혹은 진행될는지 이것은 작자조차 짐작도 할 수 없는 바이다.¹⁷⁾

(방정 필자)

작가가 創作의 恣意性을 확보하여 통속성의 폭을 넓힘으로써 독자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歷史에서 작품의 소재를 골랐지만 그 시대배경은 임의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속적 틀 속에서 임금의 폐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젊고 의기있는 사람들이 모여 거사를 도모하지만, 그 뜻을 못 이룬 데서 오는 비분을 이기지 못해 발악하는 사나이의 의기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민족의식의 발현을 내세우고 있다.

<수평선 너머로>는 동인의 장편소설 중 유일한 非歷史小說로서 일종의 추

17) 작자로부터 독자에게, <해는 지평선에>, 東仁全集 V.3, p.311.

리모험소설이다.

따라서 작품이 사건 중심으로 엮어졌을 뿐 아니라 通俗小說의 性格을 典型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작중 주인공 서인준은 전형적인 紳士로서 자기사명감에 투철한 인물이다. 日警 高等係 刑事의 추격 등 앞 뒤에서 밀어 닦치는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소속한 민족주의단체의 사업계획을 결국 성공리에 마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흥미는 민족주의의 승리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서인준과 대척관계에 있는 고등계 민완형사 이필호를 등장시킨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인물의 숨막히는 대결양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백제 의자왕대 그 혼치의 와중에서 펼쳐지는 애정행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백제멸망의 교훈을 되새기는 <백마강>, 안재영과 이인화, 연연이의 삼각애정을 다루고 있는 <젊은 그들>, 울지문덕과 견훤의 적나라한 여인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울지문덕>과 <견훤> 등 대부분의 東仁長篇小說에 통속적 속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東仁의 長篇小說에는 純文學를 표방하던 그의 短篇小說과는 달리 ‘新羅中心史觀의 克服을 통한 民族意識의 高揚’이란 분명한 작가의식이 나타나 있다.

② 이러한 작가의식에서 연유하여, 민족혼을 앞장서 불태울 수 있는 非凡하고도 才能있는 英雄型의 人物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性格創造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③ 독자 대중들에게 그의 작품이 많이 읽혀서 이러한 작가의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부정해 왔던 通俗的 創作傾向을 長篇小說 속에 受容하고 있다.

끝으로 本稿는 각 장마다 전체 장편을 상세히 다 다루지 못한 限界를 품고 있으며, 이는 後稿를 통해 반드시 克服되어야 할 課題임을 밝혀 둔다.